



경기 여주
길목농장 대표

남 상 현

2017년
한돈부문
대통령상 수상!

고객홍보처

경기도 여주에서 28년간 양돈업을 하며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길목농장의 남상현 대표. 그에게 2017년은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다. 지난 11월 29일 제15회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한돈부문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남 대표를 만나 그만의 특별한 축산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자라 막연하게 부모님 가업을 승계 받아 농업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는 그는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축산이 미래가 있다는 조언으로 축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우와 양계로 시작했는데 남 대표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 이후 한돈으로 전환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것이다.



06:00

종돈부터 출하단계까지



<길목농장>은 현재 6,000두 정도의 한돈을 보유하고 있다. 한달에 출하두수 700~800두 정도로 일주일에 2, 3번 출하를 하고 있다. 길목농장의 직원은 8명이다. 하지만 종돈부터 출하단계에 이르기까지 남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직접 분뇨를 처리하고 톱밥을 깔아 청결을 유지한다. 양돈은 돼지분뇨로 인하여 불쾌한 냄새와 돼지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축산 중 하나이다. 다행히도 길목농장은 마을과 동떨어져있어 그런 어려움은 없다며 그 농장만의 장점이라 그는 말한다.



12:00

그의 농장은 얼룩도야지

그의 농장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인 얼룩도야지 브랜드 농장이다. 그래서 그의 농장돼지들은 얼룩모양이다. 그의 농장은 버크셔와 듀록의 좋은 점을 집약시켜 탄생시킨 YBD품종의 차별화된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 품종은 번식쪽에서는 성적이 덜 하지만 육색, 보수력, 육질이 우수하여 고품질의 돈육이 생산된다고 한다. 특히 그의 농장은 톱밥 돈사이다. 이는 돼지의 운동량이 늘어 증체율이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있어 육질이 좋아져 1*등급 출현율이 51%에 이른다.



17:30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그에게도 여러번의 시련이 있었다. 2008년 전후로 돼지 소모성 질병문제로 힘들었으며 더욱더 큰 시련은 2010년 구제역발생으로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 4,000두를 살처분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 살처분된 텅빈 돈사를 바라볼 때면 허전함과 허탈함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인다고 하였다. 그이후로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주변 환경관리, 분뇨처리 및 엄격한 규격돈 선별 출하등을 통하여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 그는 양돈도 한우처럼 등급판매가 이루어져 축산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